

주부교실

3 * 4

2015
제 454호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IOPE

주름·미백 기능성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아이오페 어반 에이징™ 코렉터

피부 생명 활동 원리에서 안티에이징의 답을 찾다
아이오페는 당신의 피부에서 도시형 노화™의 솔루션을 발견
했습니다. 스트레스, 유해환경으로 나빠지는 피부를 바로잡는
어반 에이징™ 코렉터. 시간에 의한 노화는 물론 도시형 노화™
까지- 당신의 피부를 빈틈없이 관리해줍니다

칙칙함, 거친결, 잔주름을 빈틈없이 케어하는 3중 바이오 효과
어반 에이징™ 코렉터의 집중 케어로 피부의 톤, 결, 주름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로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경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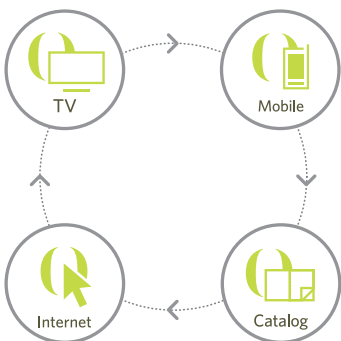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피부가 매끄럽고 촉촉해진 것을 느꼈다	85.71%	피부가 매끄럽고 부드러운 것을 느꼈다	90.48%
	피부톤이 한층 밝아진 것을 느꼈다	80.95%	2014.4~2014.5 (총 4주) 상안대성 2명 대상 / 조사기간: 1회 열리드 17명 척도 중 상위 3명을 공형 응답률로 계산	

전국 아리따움과 대형 마트에서 아이오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 | www.iope.co.kr



언제 어디서나 사는 게 행복해지는 GS SHOP

“구매 완료 되었습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사는 게 행복해지는 GS SHOP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바로 바로 검색하고, 바로 바로 사고 싶으시죠?
GS SHOP에서는 TV홈쇼핑 = 인터넷 = 모바일 = 카탈로그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자유롭게! 편리하게! 스마트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가까워진 GS SHOP에서 더 편리하고, 더 스마트하게 사는 행복을 누리세요!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발 행 일 2015. 4. 10
등 록 일 1972. 8. 31
등록번호 라-1616호
발 행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 행 인 주경순
편 집 인 임경애
담 당 원혜진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5길 7
전 화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팩 스 2279-9341
홈페이지 <http://www.nchc.or.kr>
인 쇄 세일에스애피
대 표 심 상 도
표지그림 엄 유 진

비매품

주부교실

3 * 4

2015
제 454호

생각해봅시다	4	음식철학과 힐링음식 이원중
실태조사	6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중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이 가장 많아 김보희
세계물의날 특집	8	「제23회 세계 물의 날 기념」 강연회
	10	물사랑 글짓기 / 물을 사랑한 마녀 정의민
소비자정보	12	'빅데이터' 가 무엇인가요?
	13	아는 만큼 돈도 절약 '문화할인제도'
상담사례	14	소비자의 소리 김영란
에세이	16	도림천 풍경 이민우
알아봅시다	18	미세먼지, 왜 조심해야 하나요?
	20	건조 과일 속 아황산염, 알고 드세요
생활정보	22	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문학산책	23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지부탐방/울산광역시지부	24	회원들의 봉사정신, 지역발전 이끄는 원동력!
지부소식	26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34	〈전국지도자대회〉 및 〈제22기 주부대학원 수료식〉 개최



음식철학과 힐링음식

이 원 종 / 강릉원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나는 25년 전부터 강릉의 농촌마을에서 330평의 텃밭을 가꾸며 살아오고 있다. 나는 텃밭에 우리 가족에게 먹일 요량으로 고추, 상추, 쪽갓, 가지, 오이, 토마토, 당근, 깨, 호박, 콩, 고구마 등을 정성을 다해 가꾼다. 우리 가족은 텃밭에서 나오는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기운이 온 몸에 번져움을 느낀다. 나는 이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면서도 배우는 것이 많다. 농사일을 매년 하면서 배우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의 건강도 농사일과 마찬가지로 '먹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적용되는 것 같다. 농사일처럼 우리의 건강도 매일 매일 돌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까?

1)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밥상에 올랐을 음식 하나하나를 위하여 땀 흘린

농부, 이를 도정하고 운반하고 판매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맛있게 요리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미각과 시각과 촉각이 있음에 또 감사해하자.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위장장애가 없음에 또다시 감사해야 한다.

2)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식탁을 즐겨라

프랑스의 미식가이며 <맛의 생리학>의 저자인 브리아 사바랭은 “식사는 모든 나라의 모든 세대들이 어떤 여건에서도 매일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은 다른 모든 즐거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다른 즐거움을 잃어 버렸을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즐거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매일 먹는 음식, 이왕이면 즐겁게 먹는 것이 좋지 않은가?

3) 건강하려면 소울푸드를 먹어라

소울푸드(soul food)는 ‘마음에 위안과 여유를 주는 음식’,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음식’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울푸드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음식으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먹었던 토속 전통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주시던 나물무침, 가지찜, 된장국, 김치찌개 등의 추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4) 오염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는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먹거리만큼은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아파트의 베란다나 주말 농장 같은 곳에서 한두 가지 농작물이라도 재배해 보자.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산물을 구입해 먹어야 한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어떤 종류의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상표를 잘 살펴봐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것이다. 진정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말이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친 음식을 먹는다

얼마 전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 10곳을 둘러 본 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에 사는 장수인들은 도정하지 않은 거친 곡물이나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있다. 파키스탄의 훈자지방에서는 거친 보리나 밀을 반죽하여 구워 만든 짜파티, 에콰도르의 빌카밤바에서는 감자, 오키나와에서는 고구마와 콩, 이탈리아의 캄포디멜라와 사르데냐에서는 흰콩과 렌틸콩, 중국에서는 거친 옥수수, 프랑스의 남부지역에서는 거친 빵을 주식으로 먹고 있었다.

6) 제철에 나오는 토종음식을 먹는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장수마을 사람들이나 우리 조상들은 자기네 전통 토종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그 지방의 기후, 풍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생산된 직후에 가공하거나 냉장시키지 않고 바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영양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7) 좋은 기름을 섭취하여 피를 깨끗하게 한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는 말이 있다. 장수인들의 식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좋은 기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심장병이나 암, 당뇨 등 성인병이 적은 이유는 좋은 기름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지중해식에서는 단일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오일,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기름, 중국의 바마에서는 산차유나 화마유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좋은 기름을 섭취한다.

8) 소육다채의 식생활을 한다

중국 루가오에 살고 있는 장수노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죽을 먹는다. 소식하여 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점심에는 반드시 밥을 한 끼 먹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보충한다.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점심에 닭고기로 보충한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삶은 돼지고기를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2.5배나 많이 먹는다. 그러나 녹황색 채소와 과일도 많이 먹는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본토에 비해 과일과 채소를 1.5배 이상 먹는다.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중 ‘계약 해제 및 위약금’이 가장 많아

호화결혼식 등으로 결혼시장 규모가 약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결혼비용 부담증가 등으로 혼인건수가 감소하면서 예비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업체마다 같은 종류의 서비스에 다른 금액을 제시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다.

◆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 순으로 높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국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1,419건, 2012년 1,450건, 2013년 1,621건, 2014년 1,700건으로 상담 건수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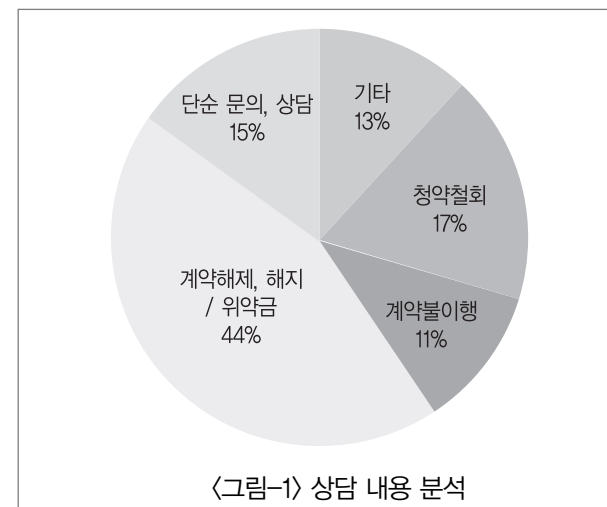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은 서울로 40.6%(692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경기도 24.8%(421건), 인천 7.6%(129건), 부산 4.3%(73건), 대구 3.9%(66건), 광주 3.4%(58건), 대전 1.2%(21건), 울산 0.6%(11건)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웨딩박람회가 자주 열리는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지역이 전체의 73.1%(1,242건)를 차지해 높은 상담비율을 보여주었다.

◆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피해 상담이 44.3%로 가장 많아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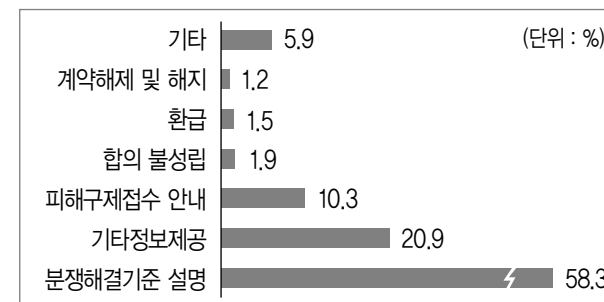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1,700건의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44.3%(75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약철회’ 17.3% (294건), ‘단순 문의 및 상담’ 15.2% (259건),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10.9% (185건), ‘기타’ 12.4%(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1 참조>



◆ 상담 처리로 ‘계약해지 규정 등 분쟁해결기준 설명’ (58.3%)이 많아

상담 후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분쟁해결기준 설명’이 58.3%(991건)으로 계약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기준을 묻는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정보제공’ 20.9%(356건), ‘피해구제접수 안내’ 10.3%(175건), ‘기타’ 5.9%(100건), ‘합의 불성립’ 1.9%(33건), ‘환급’ 1.5%(25건), ‘계약해제 및 해지’ 1.2%(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2 참조>



〈그림-2〉 상담 처리 결과 분석

◆ 결혼대행서비스 이용자 ‘30대 이상’ 60.1%로 가장 많아

소비자의 연령확인이 가능한 188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이용하는 주 계약층은 ‘20~30대’로 나타났다.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30대 이상’의 상담율이 조금 더 높아 60.1%(113명)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20대 이상’ 34.6%(65명), ‘40대 이상’이 4.8%(9명), ‘50대 이상’이 0.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계약금액은 ‘20~30만원’ 26.2%(446건)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10~20만원’ 10.5%(179건), ‘50만원 이상’ 1.4% (104건), ‘30~40만원’ 6.0%(102건),

‘40~50만원’ 1.4%(24건), ‘10만원 이하’ 0.5%(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이용시 주의사항

1.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의 이용금액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한 후 적절한 이용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계약일과 예식일, 서비스 개시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불공정 거래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지 미리 살펴본 후 계약한다.
3.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서면 해약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 기간 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4. 결혼준비대행이 이미 개시된 후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결혼준비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과다한 위약금이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5.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이 완료된 후 잔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조항과 대조하여 부당요금이나 부실한 서비스가 없는지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불만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6.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대 계산방식, 사진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세부사항은 물론 계약해제 시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김보희/ 본회 소비자국 간사〉

‘제23회 세계 물의 날’ 기념 강연회

UN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 방지 등 물의 소중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 선포했다.

이에 본회에서는 3월 19일 우리은행 본점 4층 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학회와 함께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주제로 <제23회 세계 물의 날 기념 강연회>를 열었고,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 사회를 맡았다.

다음은 강연 내용을 일부 요약한 것이다.



◆ 국민 물복지 증대를 위해 ‘통합물관리(IWRM)’

추진 - 박정수(K-water 물관리센터 실장)

‘UN환경계획’에서는 현재 세계 인구의 30%인 2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2/3수준인 4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질오염으로 인해 매년 530만여 명이 사망(8초당 1명 수준)하고 있으며 가뭄, 홍수 피해 등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물 관련 재해가 8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연도별, 지역별 편차 또한 커서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한 물 부족 국가에 속하며 댐건설, 물값분쟁 등 지역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 등으로 물 관리 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열악한 물관리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통합물관리(IWRM)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란 유역전체를 하나의 유기체

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평, 지속가능하도록 물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가적 통합물관리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을 통해 물이용 효율성 증대를 비롯해 소외지역 물복지 실현, 기후변화 대응 및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강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경제적 파급효과

높여 - 이자영(전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스페인의 ‘빌바오’와 ‘발렌시아’, 도시국가 ‘싱가포르’ 등은 강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를 엿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빌바오(Bilbao)는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 첫해만 130만 명이 쇄도하여 관광 수입이 1억 4,000만 달러에 달해 미술관 건립에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였다.

특히 산업폐수로 죽어가던 네르비온 강을 정화시켜 초호화 유람선을 띄우고, 강 주변으로 미술관 및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도시 재개발계획을 추진해 엄청난 관광 수입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예술과 과학의 도시’로 유명한 발렌시아(Valencia)는 크고 작은 오케스트라가 200여 개가 넘으며, 8km에 이르는 녹지 덕분에 관광객이 2배 이상 늘었고 관광 수입도 매년 300억 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5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마련돼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렇듯 강은 도시 경관의 최고의 무대이자, 강줄기를 따라 도시를 보게 하는 최고의 관광 가이드로

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 등 경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도 수변경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시민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어 도시와 하천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올바른 ‘물’ 섭취가 건강을 지키는 ‘Self 건강법’의 비결 - 류영창 (제2서해안 고소도로(주) 사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몸에 좋은 운동 및 식품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물’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자연 그대로의 ‘물’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부터 ‘물은 보약이다’라고 할 정도로 물은 우리 몸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갑작스레 상기되는 느낌, 짜증스럽고 공연히 화가 나는 느낌이 들고, 뇌에서 생성된 산성 물질을 소화 못해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더 나아가 물 부족으로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 비만, 변비, 당뇨, 만성피로, 통풍 등의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올바른 물 복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충분한 물과 소금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며,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 야채, 필수지방산이 포함된 균형잡힌 식단을 마련해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더불어 머릿속의 복잡한 긴장을 풀고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생활 습관이 ‘Self 건강법’의 비결이다.

물을 사랑한 마녀

본회 순천시지회에서는 해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물사랑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월 20일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2층에서 <제11회 물사랑 글쓰기 대회> 시상식을 가졌으며 대상(순천시장상), 최우수상 등 총 24편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 다음은 대상 수상작 중 한 편이다.



“따분한 수업은 여기서 그만하고 재밌고 무서운 영상을 보여 주세요.”

웬일일까. 학교에서 마녀라 불리는 사회 선생님께서 수업을 20분도 채하지 않고 영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뭐가 되었든 좋았다. 마녀 선생님의 수업이 끝났으면 됐다.

“친한 친구들끼리 앉아도 좋아요, 모둠을 만들어서 보세요.”

선생님께서 어디 아프신가? 혹시 무슨 일 있으시나? 우리를 괜한 걱정 속에 빠뜨리는 마녀 선생님께서 교실 불을 끄고 영상을 틀어주셨다.

잠잠한 가운데 영상 안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 사막을 지나는 한 사람이 숨소리를 거칠게 내며 걷는다. 지쳐 보였다. 마치 내가 체육대회 때 축구 경기를 끝내고 갈증에 허덕이던 것처럼.

그때, 발을 끌며 사막을 지나던 사람의 눈에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였다.

푸른 야자수 그늘과 시원하게 빛나는 파란 물빛. 먹이를 쫓는 사자처럼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마침내 오아시스까지 다 왔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눈앞에 오아시스를 두고 잠시 고개를 숙여 큰 숨을 몰아쉬고 다시 앞을 보았다.

그러나 눈앞에는 오아시스는커녕 푸른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한 그루도 없었다. 멍하니 뜨거운 사막을 바라보던 그 사람은 지치고 말았는지 몸을 겨누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

이렇게 하나의 영상이 끝났다. 교실에는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또 다른 영상이 시작되었다.

아침, 한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에 기지개를 펴며 일어난다. 아이는 마지못해 화장실로 향하고 양치를 시작한다. 세수도 한다.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내 눈살이 찌푸러지기 시작했다. 아이가 물을 클어 놓은 상태로 손에 비누를 묻히고 비비는 것이 아닌가.

‘저 물은 아까 사막을 지나던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한 방울의 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물을 도대체 저 아이는 왜 그렇게 사용하지?’

나는 너무 답답했다. 아니 환가 났다.

그 순간, 마녀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한 마디를 내뱉으셨다.

“지금 이 아이는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순간 민망해졌고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웠다.

영상 속의 아이는 수도물을 틀어놓은 채로 세수를 하고 양치를 마치더니 태연스럽게 샌드위치를 물고 학교로 갔다.

두 번째 영상이 끝나고 우리는 모뎀별로 느낀 점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1조부터 발표가 시작되었고 우리 조가 할 차례가 되었다. 나는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했다.

“선생님, 물은 친구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마녀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았다.

“왜냐하면요, 운이 없을 때 물에 미끄러져 화가 날 때는 괜한 이유로 친구와 갈등을 빚는 것 같고요, 운동을 하거나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꿀맛 같아요. 그럴 땐 친구가 힘들 때 제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인 것 같아요.”

물은 그냥 소중한가요 등 평범한 발표를 한 친구들과 달리 내 의견을 너무 자세히 표현한 나는 부끄러움보다는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렇게 마녀 선생님의 수업은 막을 내렸다.

저녁이 되었고 집에 왔다. 영상이 재밌었던 것일까. 물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다.

컴퓨터로는 오직 게임밖에 하지 않았던 내가 물에 대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고, 내가 물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도 많았다.

초등학교 때 체험학습으로 갔던 댐이 물을 보관하는 곳이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물이 우리 몸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물을 정화시키고 나면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비록 사람들이 물을 정화시키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그 물을 사용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물을 깨끗이 정화시키면 되더라는 생각보다는 소중한 가치를 가진 물을 처음 사용할 때부터 물을 아끼고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선생님, 마녀 선생님처럼 말이다.

<정의민/ 순천왕운중학교 3학년 10반>

‘빅데이터’가 무엇인가요?

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다보니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해지고 있다. ‘빅데이터’가 무엇이며, 빅데이터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 또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 대량의 데이터로 일정한 법칙을 추론하는 시스템

단어 뜻 그대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대량의 데이터로 일정한 법칙을 추론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최근 들어 IT(정보기술) 발달과 모바일 환경 확장으로 새롭게 창출되거나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 마케팅 전략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활용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로 월마트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미국 월마트에서 고객들의 구매 영수증을 분석하다 맥주와 기저귀를 함께 사가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부인의 심부름으로 기저귀를 사러 나왔다가 맥주도 함께 집어든 모양이다. 월마트는 이런 사실에 주목해 기저귀 진열대 옆에 맥주를 비치했고, 기저귀와 맥주를 묶어 파는 기획상품을 내놓아 매출을 올렸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구매패턴을 발견하고 이에 맞게 판매 전략을 세운 덕분이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심리를 파악해 마케팅 전략 구축, 택시나 버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환승센터 위치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교통 사고 내역과 유동인구, 날씨 등 1,400억 건이 넘는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논란 일어나

데이터는 잘 활용하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 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감정 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페이스북 측은 지난 2012년 사용자 68만9003명의 뉴스피드에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의 포스팅을 꾸준히 보여줬다. 그 결과 긍정적 콘텐츠를 본 사람은 긍정적 콘텐츠를 올리고, 부정적 콘텐츠를 본 사람은 부정적인 콘텐츠를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페이스북은 이를 논문으로 정리해 저명한 학술지에 공개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험에 동원됐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페이스북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최고 운영 책임자가 나서서 사과를 했다. 이런 문제점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면서 빅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용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아는 만큼 돈도 절약 ‘문화할인제도’

■ 나이가 많거나 적다면 ‘사랑티켓’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사랑티켓’을 통해 관람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랑티켓’은 복권기금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공연, 전시, 관람료를 일부 지원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사랑티켓’은 1991년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200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티켓 홈페이지(www.sati.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공연의 경우 7세 이하는 5,000원, 7세 이상은 10,000원이 지원된다. 전시의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5,000원이 할인된다. 사랑티켓은 연간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4세 미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본인 인증 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발급하는 방식이어서 분초를 다투는 치열한 경쟁 끝에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반면, 올해는 인원 수 제한 없이 신청자 전원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4월 30일 내에만 발급신청을 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

누리카드.kr)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세대별로 5만원씩 지급되던 카드금액이 올해부터는 개인당 5만원으로 바뀌어, 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 대학생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패스’

청소년에게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제공하는 청소년할인제도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올해부터는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일원화시키고 그 대상도 청소년에서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일원화, 확대된 청소년 할인제도가 바로 ‘문화패스’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만 13~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 및 대학생은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문화패스’는 별도의 패스는 발급하지 않으며, 신청 절차 없이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연령을 확인받고 이용할 수 있다.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분야별 시설과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화포털’ 사이트 내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소리

통신결합상품 장비반납 후에도 계속 요금 이체돼

상담 소비자(여, 서울)는 인터넷과 케이블TV, 유선전화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신청을 했다. 이사한 아파트에 설치기사가 3회 방문했으나, 아파트에 연결 회선(잭)이 부족해 설치가 안 된다는 판정을 받고 해당 통신사에서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했고, 설치기사가 장비를 수거해갔다. 6개월 후 소비자가 해지된 줄 알았던 통신요금이 계속 이체된 것을 알게 되어 통신사에 항의했으나, 통신사측은 장비반납 확인이 안 되고 설치 기사들이 파업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며 처리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했다.

처리 통신결합상품의 해지사유가 설치 불가한 지역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소비자가 장비를 반납한 상황이므로, 본회에서는 해당 통신사측에 즉시 환불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통신사는 서류접수 당시 서류 미흡으로 처리가 안 되어 소비자에게 연락했으나 연결이 안 된

건이라고 하며, 장비 반납은 해당 기사의 확인이 없더라도 상담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소비자가 해지상담을 한 시점이후에 출금된 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어 처리되었다.

인터넷쇼핑몰 모자 반품 시 재고 관리비용 요구해

상담 소비자(여, 서울)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모자를 구매했다. 배송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원했고, 쇼핑몰 측에 전화연결이 안되어 임의로 택배비를 부담해 모자를 반품했다.

이후 해당 쇼핑몰에서 연락이 왔고, 택배비 외에 '재고 관리비용'이란 명목으로 5,000원을 요구했다. 소비자는 상품 설명에도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되어 상담을 요청했다.

처리 인터넷쇼핑몰측은 모자를 구매해 두고 판매하지 않고, 소비자가 주문하면 도매업체에 주문하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고, 반품할 경우 재고 관리비용을 받고 있다고 하며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에 고지된 내용인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제품

훼손이 없을 경우 환불이 가능'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중 반품 사유가 있는 측이 배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본회는 해당 쇼핑몰이 임의로 재고 방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운영방식을 소비자에게 '재고 관리 비용'이란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을 알렸다. 이후 해당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의 모자 반품 건에 대해 추가비용 부담 없이 반품 환불 처리하였다.

국외여행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해

상담 소비자(여, 서울)는 신문광고를 보고 T여행사를 통해 국외여행을 계약했다. 일본 큐슈 여행을 4명이 1인당 60만원으로 계약하고 1인당 10만원씩 계약금 총 4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 예정일로부터 23일 전 여행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여행사에서 여행요금의 15%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생각이 들어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했다.

처리 해당 여행사는 여행업 표준약관상 "여행취소 통보 시 공휴일과 영업외 시간을 제외 한다"는 약관에 따라 여행을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여행개시일로부터 취소 통보일자를 계산해 '19일 전 취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공휴일과 영업외 시간에 소비자가 취소 요청을 할 경우 '취소 통보 시점'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환불액을 계산할 때 전체

일수에 공휴일과 영업외 시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해당 여행사에 표준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잘못 적용되고 있음을 알렸고, 여행사가 관련 내용을 받아들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규정대로 10%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 처리해 주기로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른 청소기, 반품 요구 거절해

상담 소비자(경기도 고양시)는 N홈쇼핑에서 청소기를 159,000원에 구매했다. 광고 내용은 청소기를 10시간 충전하면 20분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청소기를 배송 받은 후 4회를 사용해보았으나 10시간 충전한 후에 5분밖에 사용할 수 없어 해당 홈쇼핑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해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했다.

처리 홈쇼핑에서 구매한 공산품 경우 '제품 불량이거나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해당 판매업체측은 청소기 사용시간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일정의 사용료 38,700원을 부담하면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본회는 해당 홈쇼핑에 청소기 사용 가능 시간이 광고한 내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반품이 가능함을 알리고 환불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후 홈쇼핑에서 해당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 처리해 주었다. 

〈김영란/ 본회 소비자상담 실장〉

도림천 풍경

이 민 우 / 소설가



고가도로 옆으로, 초록 전철이 달리고 있다. 창으로 드문드문 서있는 사람들이 보일 듯 가깝다.

황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저녁의 찬 기운이 목덜미를 파고 들어온다. 하루의 일과는 어떠했던가.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집으로 갈까…… 그러나 자전거는 집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언젠가, 유난히 마음이 산란하여 갈피를 잡기 힘든 날, 자전거를 끌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온 곳이 바로 도림천변 자전거로였다. 그곳엔 묵묵히 페달을 밟으며 달리는 라이더들이 꽤 있었지만 혈색 나쁜 산책객도 서성거렸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철 지난 옷을 입은 채 돌아다니는 노숙자도 눈에 띄었다. 심지어는 바지를 내리고 웃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흔들던 남자도 있었다. 강 위로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신전처럼 전철 선로를 받치고 있고 양 옆으로 고가가 하늘을 덮고 있어 낮인데도 어둡고 역한 냄새도 났다. 지하 하수관을 통과하는 느낌이였다.

겨울 내내, 여러 일로 힘이 들었다. 2년간, 밤낮없이 노량진 도서관에서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한 둘째 딸이 낙방한 것도 낙방한 것이지만 별 이유 없이 마음이 뻘죽해져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곤 했다. 식욕이 있을 리 없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인가 싶어 비타민D 주사까지도 맞았다. 그러나 1, 2월 입안 염증이 아물지 않았고 몸무게가 2킬로나 줄었다.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왜 그리 안 좋냐고 물었다. 3월이 되면서 나는 먼지 쌓인 자전거 끈을 풀었다.

오분쯤 달렸을까. 독방길 벚나무들은 아직 검은 가지만을 뻗치고 있건만 그 중 하얀 꽃이 눈에 들어온다. 경사

면에 위태롭게 서있는 벚나무에서만 신기하게도 꽃이 피었다. 며칠 전 아침, 마치 거짓처럼 피어 있었는데 길 건너 건물 위, 태양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이쪽으로 강하게 내리쬘고 있었다. 빛의 각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덕분인가 보았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것이니 밤새 뒤적이다 아침 태양빛에 몸을 푼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산책로 옆, 운동기구에 붙어 있는 이들이 몇몇 눈에 띈다. 마스크를 쓴 노인이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몸이 하도 말라서 옷 속에서 허깨비가 움직이는 듯하다. 그 건너편에 살구색의 아파트가 도열해 있다.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오랜 시간 동안 비워진 채 방치되어 있다. 마치 홍수에 잠겼다가 드러난 것같이 칠은 벗겨지고 창틀이 떨어져 나갔고 빈 창문으로 어둡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독방길이 끝나고 천변으로 향하는 내리막이다. 작년 내내 이 근처 콘크리트 하수구 주변에 홈리스 부부가 살았다. 지난 해, 영하로 떨어지는 초겨울까지도 여자가 이불을 쓰고 부스스한 머리로 앉아 있고 남자는 근처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밥을 짓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살구색 아파트에 살았던 이들일지도, 그래서 멀리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박스를 깔고 때에 전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자는 노숙자들은 여기 저기 있었지만 부부(물론 부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침대 매트리스도 가져다 놓고 살림도구도 잡다하게 많았다. 물론 겨울이 되면서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따금, 집에서 가끔 그들이 생각나 추위에 대한 불평의 입을 닫곤 했다. 날이 따뜻해지면 노숙을 하는 이들, 기둥 아래 아무렇게나 오줌을 갈기는 남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돌다리 못 미쳐, 자전거용품 노점이 있다. 라이트, 헬멧은 물론 바지나 셔츠 등 없는 게 없지만 누군가 이 어둡한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침 언제쯤인가, 엉덩이가 아파 여기서 싸구려 자전거 안장 덮개를 샀다. 얼마 전, 역 근처에 세워놓고 서너 시간 불일을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 덮개가 사라졌다. 꽤 오래 깔고 앉아 스펀지가 뭉쳐지고 제 역할을 못하던 것이었는데……。 운수 된통 나쁜 사람인데? 인상을 쓰며 그걸 집어 던질 것을 생각하니 좀 미안하기도 했다. 옛 공단역, 대림역을 차례로 지난다. 전철역 아래 시멘트 길은 녹록한 동굴 같은데 실제로 물이 새는지 축축한 곳도 있지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데다가 축 낮은 형광 불빛 탓인지 강물은, 검은 비닐을 씌운 듯 끈적이며 번득일 뿐이다. 건너편에서 색소폰 소리가 들려온다. 가끔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묘한 모양의 피리를 불고, 팽과리를 치고 가끔씩은 중국어로 드잡이하듯 싸우는 남녀의 소리가 울리기도 한다.

고가도로도 사라지고 머리 위 전철이 옆으로 방향을 틀면, 비로소 구름이 얇은 하늘이 펼쳐진다. 그제야 제 몸을 드러낸 강……。 수량이 적은 탓인지 녹조 같은 부유물도 떠 있다. 그래도 저무는 낮은 햇살에 수면이 잘게 부서져 반짝인다. 이따금 내 자전거를 추월해 가는 이들은 젊은 라이더들이다. 그들은 어느 새 손살갈이 저 앞으로 달려, 점으로 되었다가 아예 사라졌다. 물론 내 자전거도 노래를 틀어놓고 세월아 네월아 천천히 달리는 한 노인을 제 치기는 했다.

이쪽을 향해 서있는 신도림 역사 위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양복 입은 젊은이는 51번째 면접을 끝냈을 것 같고 ‘무한도전’을 보며 쿵쿵 웃는 여자애는 3년째 아르바이트 중일지도 모르겠다. 그때 ‘우르르르’ 천둥소리를 내며 전철이 달려온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먼 곳에서 비가 오는 듯 한 기계음을 듣고 있었지만 바로 머리 위로 나는 소리는 사뭇 다르다. 내리막에 전철 못지않은 속도로 빨리 들어간다. ‘와아아

아’ 자전거도 질세라 대거리를 한다.

도림천의 끝은 신정교 밑이다. 이곳에서 안양천을 만나 한강으로 흐른다. 아직 차가운 날씨 탓인지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나들이 철에는 자전거 단체족이 바글바글 끊고 고성이가 오가는 술판도 벌어지지만 지금은 행하다. 작년에 한 동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변을 향하여 앉아 옛 러시아 작가 솔로호프의 작품을 조금씩 읽곤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눈앞의 물줄기가 러시아의 변방, 고요한 ‘돈강’이 되었다. 자전거를 세우고 파삭 마른 갈대들이 누렇게 흔들리고 있는 황량한 강을 천천히 내려다본다.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난 곳에 목이 긴 왜가리가 서 있다. 이 초라한 강을 떠나지 않는 새들은 왜일까.

태양은 강 건너 아파트로 사라졌고 잔광에 독 위의 풀이 파랗다. 돌아오는 길, 무념무상, 속도를 내어 페달을 밟는다. 마른 바람 소리가 귀 뒤로 지나간다. 도로 옆 돌바닥에는 핏자국이 거뭇거뭇 남아 있다. 얼마 전 낚은 벨트와 천 조각 사이 핏물이 흘러서 피해 다녔던 곳이다. 어느 새, 옛 공단역 콜라텍 네온사인만 반짝인다. 그리고 살구색 빈 아파트를 지나자 고기 굽는 냄새가 콧속을 후빈다. 강 쪽으로 난 환기구에서 회색 연기를 희미하게 내뿜고 있다. 역 출구 근처, 포장마차 숯불 위에서 닭꼬치가 허기진 자들을 부르고 있을 것이다. 다리 밑에서 푸드득거리며 성가시게 하던 비둘기 떼도 보이지 않고 독방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 소주병 두 개만 세워져 있다. 초록 전철이 역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다. ☒

작가 소개



1960년 생. 2006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가을의 자전거’ 당선. 단편 ‘벚꽃’, ‘메리크리스마스’, ‘유유바다’ 등이 있음. 현재 중학교 교사.

미세먼지, 왜 조심해야 하나요?

최근 겨울황사에 이어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 자주 발행하면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되면서 황사와 먼지, 그리고 초미세 먼지 같은 단어들을 자주 접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한 용어로 들리지만, 실상 황사보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더 해롭다고 한다.

◆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가 뭔가요?

황사는 바람이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흄모래로 주로 자연적 활동으로 발생하며, 칼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토양성분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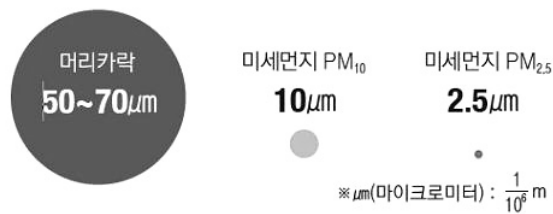
미세먼지는 주로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 미세먼지는 어디서 생기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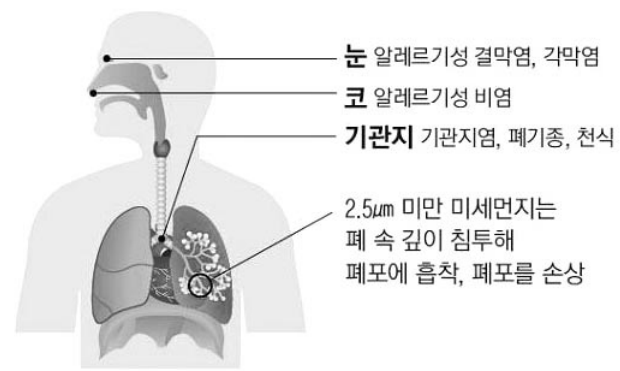
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나,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다.

인위적인 발생원은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되며,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물질이 주요 발생원이다.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비산되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난방용 연료사용이 증가하



〈미세먼지의 상대적 크기 비교〉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는 겨울철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여 고농도 현상발생이 증가한다. 국내 뿐아니라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도 우리나라 대기에 양향을 미친다. 연구결과에 의하며 대기오염물질 중 30~50% 내외가 국외에서 유입된 것이라 한다.

◆ 미세먼지가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미세먼지는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숨 쉴 때 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침투하기도 한다.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지속적 노출 시 천식과 폐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생활수칙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하기
- 외출시에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 착용하기
-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얼굴 등을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기
- 과일, 채소 등을 충분히 씻어 먹기
- 미세먼도가 고농도 시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하기

〈자료제공 : 환경부〉

잠깐!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 및 올바른 사용법

■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 또는 *KF80, KF94 표시 확인하기

-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황사 등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KF : Korea Filter의 약자이며,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냄
예) KF80 (평균 입자크기 0.6 μ m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 KF94 (평균 입자크기 0.4 μ m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

■ 세탁하여 재사용하지 않기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하여 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조 과일 속 아황산염, 알고 드세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식품첨가물이 표백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첨가물 중 표백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황산염'은 건조 과일의 갈변방지,
포도주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아황산염'에 대해 알아보자.

아황산염은 무엇인가요?

아황산염은 아황산(Sulfurous acid)의 나트륨이나 칼륨염 형태로서, 식품 제조·가공 시에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포도주의 발효과정에서도 천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체내에서는 시스테인, 메티오닌과 같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의 대사과정에서 아황산염이 생성된다.

아황산염은 어떤 식품에 사용되고,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황산염은 과·채류를 원료로 하는 과실주스, 건조과실류, 건조채소류, 과실주와 발효식초, 새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주로 과·채류, 새우, 감자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식품에는 갈변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포도주에는 보관 중 산소에 의한 산화방지 및 유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맛과 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아황산염은 제외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나요?

밥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등 4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1970년에 산성아황산나트륨, 1996년에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이 지정되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아황산염은 정말 안전한가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식품을 통해 섭취된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0.7mg/kg bw/ day, (Acceptable Daily Intake, ADI)]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실제로 아황산염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나요?

2012년 아황산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섭취수준은 ADI 대비 4.6%였으며, 고섭취집단(95 percentile)에서도 ADI 대비 최대 25.6%로 조사되었다.

아황산염이 함유된 식품 섭취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황산염 형태로 소변을 통해 배출되며 체내 조직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일일섭취허용량 이내로 섭취 시 안전하다.

다만, 천식질환자나 아황산염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황산염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에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황산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산성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은 사용대상 식품별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섭취량 평가를 통하여 ADI 이내로 섭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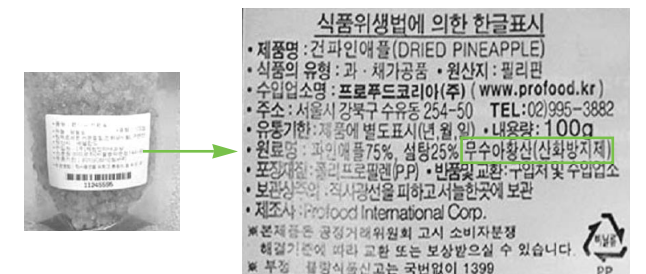
'12년도 수행한 우리나라 국민의 아황산염 섭취량 조사에서 극단섭취군까지도 일일섭취허용량 이내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아황산염 제조 시 생성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비소, 납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CODEX, EU 수준의 규격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아황산염이 함유된 식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명칭인 「산성아황산나트륨(또는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과 그 용도인산화방지제는 「산화방지제」, 표백용은 「표백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들은 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Tip

과일·채소 말리는 법

■ 오븐을 사용하면?

오븐의 가장 낮은 온도인 130도로 맞춰 수분을 증발시켜 주세요. 특히 수분이 많은 귤, 토마토 등 수분이 많은 과일은 오븐에 말리면 더 말랑말랑하게 즐길 수 있어요.

■ 식품건조기를 사용하면?

과일과 채소를 가장 손쉽게 말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식품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70℃에서 7~10 시간 정도 말려주면 수분은 날아가고 쫄깃쫄깃한 상태가 되요.

■ 자연의 바람과 햇빛으로 말리면?

과일은 달콤한 향 때문에 먼저나 벌레가 달라붙을 수 있어, 채소를 말리기에 좋은 방법이지요. 채소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 말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시로 확인하여 꾸들꾸들해질 때까지 말려주세요.



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물을 구매할 때에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나요?
브랜드와 가격만 보고 구매하던 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알아보자.

■ 물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맑고 순수하게 걸러낸 물이라도 고여 있는 물속에는 일부 미생물과 정수 과정에서 일부 성분들로 인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생수의 유통기한은 다른 유제품과 다르게 부패하는 기한이 아닌 판매를 위한 기한이라고 한다. 하지만 밀봉된 상태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순도가 떨어지고 정수, 제조 과정에서 물과 접촉을 한 세균으로 인해 물의 성질이 변질될 수 있다. ‘먹는 샘물 기준법’에서는 물의 유통기한을 6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외국에서 수입되는 명품 생수들은 2년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진다고 한다.

또한, 생수가 담겨있는 페트병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용기의 특성상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투과물질, 고온이나 직사광선으로 인한 유해물질, 악취 등이 풍길 수 있으니 유통기한을 따져보고 마시는 것이 좋다.

■ 고로쇠나 약수의 유통기한은 얼마정도로 봐야 할까요?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다량의 미네랄과 무기질 성분의 함유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을 위해 찾고 있는 고로쇠 물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고 칼슘과 철, 마그네슘 등으로 꾸준히 음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러 산지의 약수터에서 흘러 내려오는 약수는 밀봉된 상태로 음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히 기간을 유의하며 음용해야 한다.

고로쇠 수액이나 약수는 냉장보관을 할 경우 최대 10일 정도이며 물을 마시기 전 냄새를 확인한 뒤 혀로 맛을 확인하여 신선할 때 음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수는 한 번 끓여 먹는 것이 좋으며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침전되어 있는 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한국수자원공사〉

잠깐!

수돗물 맛있게 마시는 방법

- 반나절 정도 받아둔 수돗물을 유리나 사기용기에 넣어 2시간 정도 냉장 후(10~15℃로 유지) 마시면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받아 솥을 넣어두면 소독약 냄새도 사라지고 물맛이 좋아지며, 물을 끓인 후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넣으면 혹시 존재 가능한 불순물도 달라붙게 되어 더욱 맛있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달의 입을 만한 책

▶ 나는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다

저/역자: 한혜경 (출판사: 샘터사)



바야흐로 장수사회다. 늙어가는 속도와 범위를 감안컨대 한국사회의 은퇴이슈는 조만간 대형폭풍우를 동반할 게 확실시된다.

고령화는 전인미답의 길이다.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니 좀체 알기 어렵다. 먼저 겪은 해외사례에서 미력하나마 힌트를 얻는 게 고작이다. 다만 역사적 경로 의존성이 달라 온전히 받아들일 순 없다.

고령사회, 은퇴갈등 등과 관련한 한국적 분석시도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책은 이 갈증을 풀어준다. 연구지원 덕에 2회에 걸쳐 무려 1,000명의 은퇴자를 조사한 결과를 묶어냈다. 한국의 고령인구가 왜 ‘품위’ 없이 고단한 인생 2막에 떠밀렸는지 이들 장삼이사야의 개별사례를 빌어 정리했다. 책장과 필드를 두루 섭렵한 전문가답게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버리는 기술’이다. 뭘 버리면 품위 있는 노후가 가능할까. 정답은 나를 뺀 모든 것이다.

희생과 헌신압박을 벗어버리고 올곧이 본인 인생을 위한 삶을 살 때 노후 안녕은 확보된다는 논리다. 맞는 말이되 과연 가능할진 모르겠다. 그래도 살금살금 마음의 준비라도 해두는 편이 낫겠다. 어차피 인생은 본인 것 아니던가

〈추천자: 전영수(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 빅 브러더

저/역자: 라이오넬 슈라이버 /박아람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빅 브러더』는 미국 여성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편이다. 화자 판도라의 오빠 에디슨은 한때 무척 잘나가는 재즈 뮤지션이었지만 인기가 떨어지고 파도림을 당하게 되자 폭식으로 175kg의 거구가 된다.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던 친구의 부탁으로 그를 ‘잠시’ 떠맡게 된 여동생은 그의 역겨운 폭식과 밉살스러운 말투도 참고 보살핀다. 두 달이 지나고 나서 해외공연 스케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빠를 그대로 표류하게 할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 오빠를 1년 만에 102kg를 감량시켜 빛나는 재즈 스타였을 때의 외모와 몸매를 되찾게 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감량 성공 축하파티가 성대하게 열린 날 밤, 오빠는 여동생이 이제 남편에게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는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폭식을 해버린다.

이 작품은 인간이 ‘살과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손에 땀을 쥐고 따라가게 만든다. 때론 살벌하지만 자주 유쾌한 유머로 독자를 달래며 빨아들이는 이 책은 인간의 몸을 통해 발현되는 마음의 질병들과, 인간의 교묘한 자기기만, 끈질긴 자기파괴적 성향에 대한 예리하고 가차 없는 고찰이며 절망적 절규이다.

〈추천자: 서지문(고려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박보봉(울산광역시지부 회장)

회원들의 봉사정신, 지역발전 이끄는 원동력!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는 1972년 당시 경상남도지부 산하 울산군지회로 결성된 후 1995년 지회조직 변경으로 울산시지회로 활동했다. 1998년 1월에 행정구역 승격으로 울산시지회가 ‘울산광역시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개 지회를 증설하여 현재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999년 4월 박보봉 회장이 취임하여 현재까지 지부를 이끌어 소비자사업, 환경사업, 에너지사업, 교육사업, 지역사회봉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2년부터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으나 타는 법을 몰라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부 등 시민들의 어

려움을 해소하고자 <그린자전거 교실>을 운영해 고 유가시대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참여, 지구 환경 지키기에 앞장섰다.

현재까지 자전거타기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자전거 구조 이론교육 실시 후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도로주행 실습을 병행 한 체계적인 <그린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11월 ‘자전거타기운동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2003년 11월 ‘자전거타기 운동 우수사례 경진대회’ 직능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부터는 울산대공원, 동천체육관 2곳에서 자전거 교육장을 확장 운영해 매년 4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자전거타기 홍보 거리 캠페인’,



<그린자전거 교실>



<재활용 악기 음악경연대회>



<알쏭달쏭 환경퀴즈대회>



<청소년 환경탐사대 활동>

‘느림보 거북이 자전거타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교통 정체와 대기오염 완화, 자가용 이용 억제 등을 유도해 친환경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능력향상 및 지구환경을 보호하고자 2005년부터 <청소년 환경탐사대>를 운영해 하천 수질조사, 수서생물 조사, 생태지역 탐방, 환경 탐사, 환경시설 견학,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으로 4,000여명의 ‘청소년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재활용품으로 악기를 만들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재활용 음악경연대회>를 2009년부터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2014년 <농식품 스마트 소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 원산지표시제도,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실천방법, GAP 농산물 확대를 위한 소비자 인식도 교육 및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녹색체험마을에서 직접 두부, 떡 만들기 체험 및 전통식품(된장, 고추장) 만들기 및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경연대회, 아침식사용 요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렸으며, 올해는 ‘텃밭 가꾸기’ 등 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매주 월, 수요일 2시간씩 기초반, 중급반으로 나누어 <어르신 한글교실>을 1999년부터 운영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정보전시회’를 비롯해 ‘실버건강교실’,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 만들기’,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손자, 손녀 돌보기 교실’, ‘역사, 문화, 환경 속으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요’,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전국캠페인’,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운영’, ‘알쏭달쏭 환경퀴즈대회’, ‘울산사랑한마음 가족 동요 부르기 대회’, ‘EM 환경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민과 함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2월 ‘울산 주부교실 화합 한마당’ 행사를 마련해 지부발전과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도 울산시지부의 다양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전 회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

시지부(회장 김기묘)에서는 지난 3월 10일과 19일 기장읍사무소 강의실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 장성석 계장은 강의를 통해 농산물 원산지 식별요령 및 원산지표시 사항에 대한 감시, 신고 활동 등 민간 감시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 안보강연회 개최 및 '시민나무심기' 참여

3월 12일 본회 강의실에서 회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안보강연회를 준비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현명한 자세 및 안보의식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일에는 회원 20명이 그린스타트 회원들과 함께 녹산화전단지복지대에서 '시민나무심기행사'를 갖고 시민나무심기 운동 전개로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 그린부산 조성에 앞장섰다.

대구광역시지부

■ 에너지 사랑봉사단 활동

시지부(회장 손기순) 회원 23명은 에너지관리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에너지 사랑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3일 화성복지재단 화성양로원을 방문해 식사를 대접하며 레크리에이션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세계 물의 날' 기념 물사랑 캠페인

회원 20명은 '세계물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20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병물을 나눠주며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물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광역시지부

■ 지회장회의 및 봉사활동

시지부(회장 이순애)에서는 지난 3월 9일 시지부 사무실에서 지회장 7명이 참석해 '지회장 회의'를 갖고 지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회원 12명은 9일과 16일 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위한 식사제공 봉사활동을, 회원 5명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인천검찰청에서 민원인 안내 및 불편사항 접수 도우미 봉사활동을 각각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 노인대상 소비자교육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지난 3월 6일 빛고을노인타운에서 어르신 200여분을 대상으로, 26일 북구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50분을 모시고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물사랑 교육 및 캠페인

3월 17일 여협회관 4층 강당에서 회원 및 소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K-water 광주전남지역본부 윤정화 자원품질차장로부터 물사랑 교육을 받고, 참석자 모두가 결의문을 제창하며 물사랑 캠페인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지부

■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지난 3월 17일 충청하나은행 본점 10층 강당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물복지 향상을 위한 효율적 물 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밭대학교 유병로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K-water 김주환 소장이 주제 발제 강연을 해주었다. 대전대학교 임봉수 교수, 한남대학교 강명희 교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박정규 교수, 한밭대학교 주진철 교수, 대전발전연구원 이재근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누구나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친환경 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광역시지부

■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시지부(회장 박보봉) 회원들은 지난 3월 17일 정자교회를 방문해 북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발 마사지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렸다.

회원 45명은 3월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안댐을 찾아가 주변 쓰레기 줍기 등 정화활동에 참여했고, 울산시청 앞에서 수돗물의 안전성 및 음용유도를 위한 물사랑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기도지부

■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도지부(회장 박명자)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0명은 지난 3월 11일, 20일, 23일, 27일 수원시 권선동, 화서동, 망포동 음식점 및 대형마트, 양곡판매점 등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 봉사활동 및 캠페인

고양시지회(회장 안영애)는 지난 3월 2일 고양시의회 회의실에서 본 지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합 등 총 5개 단체가 모여 <고양시 소비자단체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석유감시원활동을 시작으로 소비자주권의식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구리시지회(회장 송정애) 회원 20명은 3월 4일 토평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남양주시지회(회장 박순자)에서는 지난 3월 19일~26일 호평동 중흥아파트, 별내동 한화꿈그린 아파트 등에서 가전회사, 자동차서비스센터 직원들과 함께 무상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했다.

안양시지회(회장 서경옥) 회원 8명은 3월 2일 호계복지관, 회원 17명은 3월 10일 동안복지관, 회원 8명은 매주 목요일마다 시각장애인센터를 각각 방문해 급식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오산시지회(회장 장춘화) 회원 6명은 3월 20일 세교복지재단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회원 40명이 3월 25일 금암동 세교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가전사 직원들과 함께 가전제품 무상 수리 및 점검 등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했다.

파주시지회(회장 김순자) 회원 9명은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제공 도우미 활동을, 26일에는 회원 10명이 푸드마켓과 연계해 법원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3월 9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금촌 로터리, 시청, 금촌역 일대에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고, 13일에는 회원 13명이 봉일천 공릉천 자전거 도로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파주시 클린데이 행사에 참여했다.

평택시지회(회장 이순자)에서는 평택시 북부 여성회관 내 북카페를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3월 17일에는 회원 18명이 보건복지센터 4층에서 열린 지역 내 어르신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행사에 도우미로 참여했고, 회원 4명은 차상위가정 14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강원도지부

■ 봉사활동 및 캠페인

도지부(회장 오영희) 회원 3명은 매주 화요일 삼수동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한글수업, 아동들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원주시지회(회장 홍연희) 회원 8명은 3월 2일 원주 중앙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감시활동을 전개했다.

춘천시지회(회장 박미라) 회원 10명은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 춘천 시립복지원을 방문해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회원 2명이 강원여성 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교실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태백시지회(회장 박은주) 회원 3명은 3월 5일과 19일 태백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양구군지회(회장 최경지) 회원 8명은 3월 12일 노인요양시설 '안나의 집'을 방문해 점심 식사 대접 및 말벗이 되어드리며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드렸다.

정선군지회(회장 윤계화) 회원 6명은 매주 목요일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홍천군지회(회장 이영표) 회원 8명은 3월 1일 홍천군청에서는 열린 '제16회 국민달리기 대회'에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고, 3월 6일 홍천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횡성군지회(회장 박군자) 회원 4명은 3월 20일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세계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여한 후 횡성댐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충청북도지부

■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

도지부(회장 김정자)에서는 지난 3월 23일 충북여성인권상담소 강의실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57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사항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 등 민간 감시주체자로서의 명예감시원의 역할을 교육했다.



■ 월례회의 및 봉사활동

옥천군지회(회장 윤순예)에서는 3월 16일 지회장 자택에서 임원 등 회원 13명이 모인 가운데 월례회의를 갖고 지회 활성화 의견을 나누며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증평군지회(회장 이창숙) 회원 5명은 3월 10일과 24일 증평장애인협회를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진천군지회(회장 최경옥) 회원 6명은 3월 13일 하상주차장 및 읍거리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충청남도지부

■ 온누리안 쉼터 개강식

도지부(회장 조춘자)에서는 지난 3월 2일 온누리안 쉼터에서 결혼이민자 여성 20명과 공주시지회 회원 1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교육 개강식'을 가졌고, 이후 한글교실, 한국전통요리 실습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 '수돗물 사랑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

3월 24일 회원 8명은 3월 24일 공주시 한아름 아파트를 방문해 아파트 관리소 직원 및 주민들과 함께 '수돗물 사랑마을 만들기' 2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수질검사 결과 발표 등 추진 실적을 보고하면서 수돗물 안전성 홍보에 꾸준히 동참하기로 했다.

■ 물가 안정을 위한 캠페인

보령시지회(회장 황희자) 회원 35명은 3월 23일 관내 변화가 일대에서 소비자단체 회원들과 함께 보령시에서 후원한 홍보 물티슈를 배포하면서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전라북도지부

■ 운영위원회 및 월례회의

도지부(회장 강정자)에서는 지난 3월 2일 도지부 교육장에서 운영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새로운 부회장 추천 및 선임에 대해 논의했고, 16일에는 명예감시원 등 지도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해 올해 추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논의했다.

■ 봉사활동 및 수돗물 사랑마을 운영위원회

도지부 회원 10명은 3월 12일 덕진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19일에는 수돗물 사랑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우성삼천 2차 아파트를 방문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질검사 결과 발표 등 주민들의 수돗물 음용문화 확대에 참여해 줄 것을 유도했다.

■ 소비자상담원 교육 및 명예감시원 활동

군산시지회(회장 박희순)에서는 지난 3월 3일 지회 교육장에서 소비자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상담 사례를 통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교육했다. 회원 4명은 3월 6일과 8일 대야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등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활동을 전개했고, 회원 8명은 3월 4일~6일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 식품 감시활동을 실시했다.



정읍시지회(회장 유예순) 회원 3명은 3월 13일 정읍 샘골 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상인들에게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며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유도했다.

■ 봉사활동

김제시지회(회장 문순희) 회원 13명은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임마누엘 평강의 집'을 방문해 치매 노인들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지부

■ 물사랑 교육 및 정보전시회

도지부(회장 이승자)에서는 지난 3월 19일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세계 물의 날'을 기념 행사로 물사랑 교육 및 정보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물사랑 10대 수칙' 실천 결의문 채택 및 물 교육 시간을 비롯해 '물 정보 전시회'를 통해 세계 물 부족 현황, 우리나라 강수의 특성, 생활 속 물 절약방법 등을 소개했다.

■ **‘제11회 물사랑 글쓰기 대회 시상식’ 및 물사랑 교육**
 순천시지회(회장 신애란)에서는 3월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2층에서 회원 및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물사랑 글쓰기 대회’ 시상식을 갖고, 한국수자원공사 김세진 운영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물사랑 교육을 실시했다.



■ 봉사활동

광양시지회(회장 김인자) 회원 6명은 3월 17일 YWCA 무료급식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및 설거지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

고흥군지회(회장 조양덕) 회원 6명은 3월 25일 도양읍 문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집안 정리 및 정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장흥군지회(회장 한수남) 회원 6명은 3월 17일 장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국에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다문화여성을 위한 생필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경상북도지부

■ 봉사활동

구미시지회(회장 남현숙) 회원 10명은 3월 6일 어르신의 전당을 방문해 점심 식사배식 및 시설 내 청소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문경시지회(회장 김명자) 회원 3명은 3월 17일 문경시립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영주시지회(회장 양영순) 회원 8명은 3월 18일 무료급식소 하망동 만남의 집을 방문해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포항시지회(회장 남순례) 회원 34명은 매주 월요일 학산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도시락 조리, 배달 및 세척 도우미 활동에 참여했다.

고령군지회(회장 설미선) 회원 5명은 3월 20일 대창양로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영양군지회(회장 김경숙) 회원 13명은 매주 목요일 영양군복지회관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조리 및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예천군지회(회장 권춘선) 회원 5명은 3월 18일과 25일 성당 나눔의 집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비롯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식료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울진군지회(회장 주윤옥) 회원 10명은 3월 17일 울진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북면 두천1리에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 댁에 자장면을 배달하는 <행복마을 사랑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경상남도지부



■ 월례회의와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

도지부(회장 김점숙)에서는 3월 10일 도지부 강당에서 운영위원 등 임원과 회원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월례회의를 갖고 상반기 행사 및 도지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 11일 도지부 강당에서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회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활동 방법 등을 교육했다.

■ ‘건강한 수돗물 마시기’ 홍보 캠페인

도지부 회원 50여명은 3월 20일 창원 컨벤션센터 옥외광장에서 ‘세계물의 날’을 기념하며 <건강한 수돗물 마시기>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가족을 위해 엄마가 챙겨주는 홈워터, 수돗물과 함께해요!’라는 구호 아래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물의 소중함과 수돗물 음용 확산에 앞장섰다.

■ 봉사활동 및 캠페인

진주시지회(회장 구숙지) 회원 10명은 3월 21일 산청군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야영장 주변 환경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산청군지회(회장 정정숙) 회원 8명은 3월 4일과 12일 산청복음요양실 버선터를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봉사와 말벗이 되어 드렸다.

함양군지회(회장 임순남) 회원 12명은 3월 18일 함양남중학교 앞에서 학교폭력근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장비구니 물가조사

도지부(회장 강순희) 물가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5명은 매주 화요일 도내 중대형 매장 및 재래시장 14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초생필품 85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제품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월례회의 및 찾아가는 소비생활교실



3월 6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임원 및 시분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해 월례회의를 갖고 상반기 사업 추진 경과 등 도지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24일 제주시 노형성당에서 어르신 30여분을 모시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주부교실게시판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 개최

해마다 본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속과 화합을 통해 여성 지도자로서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하는 전국지도자대회를 '사회갈등 해소에 앞장서는 여성'이란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21일 (화) 13:00
- 장 소 : The-K 서울호텔 거문고홀 (양재동 소재)
- 참석대상 :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회장단 및 회원
- 문 의 : (02)2265-3267~8, 0637

의류 및 세탁물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업체간의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의류심의분쟁조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매주 화요일 9:30~17:3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또는 퀵서비스 이용(지방에 한해 택배 가능)
- 접수문의 : (02) 2266-5870, 2273- 2485, 6300
- 홈페이지 : www.nchc.or.kr

제 22기 주부대학원 수료식

주부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의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한 <제22기 주부대학원>이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수료식을 갖습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28일 (화) 10:30
- 장 소 : 본회 3층 강당

등산반 시산제 개최

주부대학 수료생들의 건강과 친목 도모를 위해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등산반이 다음과 같이 시산제를 가집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29일 (수) 10:30
- 장 소 : 수락산(덕성여대 생활관 뒤편)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jungang.seoulwomen.or.kr
- 문 의 : (02)3409-1948~9

다랜드 스타일 언더웨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입었습니다

